

<b>분류</b>	주일예배 설교- 주일1부
<b>제목</b>	<b>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b>
<b>성경</b>	<b>출애굽기 19:7-15</b>
<b>일시</b>	2009년 6월 28일
<b>장소</b>	임마누엘 서울 교회
<b>강사</b>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b>주제어</b>	

♣성경말씀 (출애굽기 19:7-15)

- 07/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 08/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 0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뽀뽀한 구름 가운데서 너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 11/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 12/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 13/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 14/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 15/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 요약 자료 ♣

☞서론

▶ 시내산에 올라오게 된 것은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예배 드리도록 창조된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는 말을 영영히 잊지마라. 뭘 영원히 잊지 말라는 말인가?

1.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출19:1-6)

- (1)야곱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에게 고하라.  
▶이שראל 나라에다가 복음을 먼저 주신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한다.
- (2)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냈다.  
▶너를 흑암과 저주, 사탄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것을 잊지마라.
- (3)그 사실을 믿으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두가지 일이 계속 일어난다. 여러분 인생이 분명히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사탄이 여러분을 계속 공격한다. 반대로 구원 받은 자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영영히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자꾸만 흑암세력이 공격해 들어온다.

2.영원히 해야 할 일

- (1)6절, 이 말을 자손에게 전달해라.
- (2)7절, 장로에게 전하라.
- (3)8절, 모든 백성에게 들도록 만들어라.  
▶복음, 너를 괴롭히고 있는 영적 존재가 무엇인지 듣게하라. 듣고도 못 깨달았으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못 들었으면 우리 책임이다. 이 사실을 자녀에게 말하고, 중직자들에게 말해서 곳곳에 빛을 비취 모든 백성들이 들도록 해야 한다.

3.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 (1)9절에,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무슨 말인가?
- (2)11절에는 여호와께서 산에 강림하셨다. 무슨 말인가?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이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것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어떻게 체험하는가? 믿는 순간부터 역사 일어난다(모세, 엘리야, 램넛트 7명)

4.결론- 더 중요한 미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미래,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

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1)광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2)수3:4절에 한번도 안가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영적인 힘을 달라.  
 (3)왜 그런가? 가나안 땅 가야 하니까...나에게 와 있는 고난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없다.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가서서 1분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라. 애굽에서 날 건져내셨다, 나에게 가장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영영히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 이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e end)

❁ **독취 자료** ❁

☞ **서론**

▶ 시내산에 올라오게 된 것은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다.

어떤 청년이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하루 종일 검사를 했다. 그러더니 검사 결과는 조금 있다가 나온다고 했다. 다음에 올 때는 보호자처럼 같이 와야 한다고 얘기했다. 의사들끼리 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의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했다. 환자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 환자의 상태는 심각하다. 사진 상으로 봐서는 너무나 많이 많이 번진 것 같다. 이 상태라면 일 년도 살기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이 분들이 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미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 알아듣는다. 아 내가 드디어 암에 걸렸구나. 여러분은 막상 걸리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일 년도 살기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힘이 빠진다. 기분이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왜 난 이런 암이 걸렸을까? 내가 이제 조금 공부도 하고 살만한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친구가 이제 방에 들어와서 혼자서 생전 안하던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 내가 살아날 길이 없겠나? 의사를 얘기로는 내가 얼마 안 되서 죽고 말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를 살려 달라. 이 사람이 생전 그런 기도를 안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가서 검사를 해봤다. 조사를 하더니 의사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다행스럽게 암은 아니다. 그냥 혹이었던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조금 더 두고 보자.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안심이 된다.

당장 안심되니까 기도도 뭐고 그냥 안하게 되었다.

▶ 몇 년 전에 고베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 지진이 나서 건물들이 다 무너졌다. 하필이면 어찌된 영문인지 교회당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에 사람들이 교회에 다 왔다. 다 무너졌는데 교회만 안 무너졌느냐고, 사람이 이렇다. 너무나 많은 고통 당하면 그게 서야 하나님을 찾는다. 인간이 이토록 어리석다. 완전히 죽을 고통이 와야 그래서야 하나님 앞에 선다. 요만큼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희망 쪽으로 가지 하나님 찾지 않는다. 완전히 희망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선다.

▶ 내가 대학 때에 전도하러 갔을 때, 어떤 분이 살이 다 빠졌다. 어디 아프냐 물었더니 위암이라고 했다. 살이 싹 다 빠졌는데 얼마 못살겠다 싶었다. 보니까 이름이 있고, 27세라고 했다. 결혼했나 하니 안했다고 했다. 이 분에게 복음을 전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는데 이분은 진지하게 듣고만 있었다. 지금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뒷 얘기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 설명을 하니까 이 친구가 난데없는 대답을 했다. 내가 하나님을 미리 믿어야지 지금 믿어서 되겠다. 지금 믿어도 된다 했다. 그래도 그렇지 전에 믿을 기회가 많았는데 지금 몸이 병이 들어서 이렇게 믿으면 미안하지 않느냐. 참 착한 친구다. 그래도 믿어야 된다고 했다. 다음에 믿겠다고 했다. 다음 주간에 가보니까 없었다. 아마 다른 데로 옮겼는지 사망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분명한건 이 사람이 완전히 초진장 상태로 있었다.

▶ 성경은 우리에게 쉽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면 이제야 이 고통이 어디서 왔나 한다. 그래서 점점 어려움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급할 때 그제야 하나님을 찾고 하는 상황이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어머니 젖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어머니 젖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지 젖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안 된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꿀물, 산삼물 아무리 태워줘도 소용없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 젖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나. 죽게 된다. 그러면 급하니까 애들이 배고프면 손가락을 빨다. 물론 운동신경이 뛰어난 아이는 발가락도 빨다.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

▶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하는데 못 만나니까 이것 붙잡고 저것 붙잡고 한다.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데 그 사람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을 바엔 내 주먹을 믿는다. 당신 주먹이 그렇게 세냐고 물어본다.

▶ 그런데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믿도록 되어있다. 인간만 하나님을 믿도록 되어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짐승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는데 인간만 하나님을 믿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 개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개가 공항 같은 곳에서 냄새로 범인을 잡아낸다. 개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봤는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그럴 수가 없다.

우리 집에 키우던 개가 나가는데 매번 집을 찾아온다. 개가 얼마만큼 영리하나하면, 그때 우리 집에 마당이 있었다. 개를 어찌다가 한 마리 키우지 너무 많으면 집이 더러워져서 싫어한다.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님 집이 마당이더라 하면서 개를 자꾸 가져왔다. 그래서 새끼를 낳으니 11마리가 되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른다. 개가 열 몇 마리가 우글거리니 그야말로 개판이었다. 집사람과 애들은 개를 좋아하고 나는 개를 싫어한다. 냄새나고 털

이 나고 어지르고 시끄럽고 그렇다. 그런데 이 개가 머리가 엄청나게 뛰어나다. 앞에 온 개가 있고 며칠 뒤에 온 개가 있다. 이것이 다 계급이 있다. 깜짝 놀랐다. 뒤에 온 개가 밥을 먹는데 눈치를 보고 먹는다. 먼저 온 개가 대장처럼 있다가 어떨 때는 못 먹도록 몰고 그린다. 개들이 회한하게 선후배가 있다. 그냥 먹으면 되는데 밥을 먹는데 눈치를 본다. 약간 못된 개 한 마리가 자꾸 자기마음대로 하고 다른 개를 몰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몽둥이로 때렸다. 자꾸 다른 개 못살게 하니가 그랬다. 그러더니 이 개들이 내가 가면 방으로 다 들어갔다. 내가 놀란 것이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 나면, 얼마나 영리한지 내 발자국 소리 알고 딸 발자국 소리를 안다. 내 발자국 소리가 나면 개들이 집으로 다 들어간다. 딸 발자국 소리가 나면 개가 나면 된다. 이만큼 개가 영리하다. 그런데 한 번도 개가 예배드린 적이 없다. 개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있다. 소도 못 드리게 되어있다. 돼지가 먹는 것만 알지 예배 못 드리게 되어있다.

지구상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몰라서 자꾸 돌보고 절하고 하나님 모르니까 나무보고 절하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계속 고통이 온다.

▶ 20세기 음악을 바꾼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한다. 그리고 유행음악을 바꾼 사람이 비틀즈라고 한다. 프레슬리, 비틀즈 이 두 사람 합친 능력이 마이클 잭슨이다. 그 사람이 죽으니까 전 세계가 추모하고 난리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만큼 고통이 많았는가. 뉴스를 보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우리가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마이클 잭슨 저 분이 정확하게 복음을 들은 적이 있겠는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본인이 50세까지 사는 동안에 너무나 큰 인물인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가. 미국에 사는 사람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겠는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더 많은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죽었다.

▶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1.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출19:1-6)**

▶ 내가 하는 말을 영영히 잊지 말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너희를 부른 것은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는 언제 고통이 올지 모른다. 이 세상에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영영히 쉽게 말하면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말인가? 무엇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하는가?

지난번 주간에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영원히 잊지 말라는 것이다. 그곳에 무엇이 나왔는가?

(1)야곱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에게 고하라.  
(2)무엇을 말인가? 나는 너를 애굽 중 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었다.

(3)내가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 영원히 잊지 말라. 야곱 이스라엘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나라에 복음을 먼저 주신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 나는 너를 애굽의 중 되었던 것을 건져 내었다.

왜 인간의 고통이 계속 되는가? 왜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 속에서 고통 받다가 죽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너를 흑암과 저주 사단의 손에서 건져 냈다 그 말이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영영히 잊어버리지 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전국 세계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두 가지 일이 계속 일어난다. 틀림없다. 아무리 거부해도 두 가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공격한다고 되어있다. 반대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인도하신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영영히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성경말씀은 변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말고 상관이 있는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흑암세력이 자꾸 공격해 들어온다. 오늘 여러분 말씀만 붙잡는데도 응답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2. 영원히 해야 할 일**

▶ 두 번째로 무엇인가? 영영히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1)6절에 보니까 이 말을 네 자손에게 전달하라.

(2)7절에는 장로들에게 전하라.

(3)8절에는 이 말씀을 모든 백성이 들도록 만들어라.

▶ 잊어버리지 마라. 군 선교하는 분들이 이 말을 많은 분들이 들도록 만들어라. 안타깝다. 몰라서 죽으니까...

지금 연예인들, 음악 하는 사람들, 많은 중요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너무 표나게 하지 말고 잘 접촉해 보라. 그 사람들이 거의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줘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런 척 거짓말하고 있다.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실이다. 나중에 그 사람이 자살했다 그러면 그때서야 충격 받는다. 사실상 들은 애긴데, 옛날에 자살한 그 여배우도 계속 귀신이 보이고 영적문제에 계속 시달렸다고 한다. 기독교인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 단 한 번도 전달하지 않으니 살아날 수가 없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은 어떻게 하는가? 분명히 다른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셨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책임지지겠다고 했다. 내가 네게 참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 언약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전달하라. 왜 자녀들에게 전달하는가?

▶나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를 자세히 봤다. 어떤 장로님에게 어떤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한동훈 장로님이다. 우리 아이를 이 집에 좀 있게 해달라고 했다. 돈은 걱정할 것 없다. 우리 멤버가 아닌데 그랬다. 그 분이 그렇게 표현했다. 지금 아이들이 유학 오면 3일이면 다 망할 것 같다고. 좀 지나칠 수 있겠지만 그분의 표현이다. 지금 유럽에 애들을 보면 3일만에 다 망했다고 표현한다. 물론 그분이 좀 예민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일리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언약을 네 자손에게 전달하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가?

▶이 땅에 계속 고통이 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로 있는 책이 아니다. 이 말씀 전해야 하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 하는가? 자살한 배우나 연예인이 한 번도 복음을 정확하게 못 들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교회 책임이다.

군에서도 자살 많이 한다. 군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군대가 가기 전에 벌써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보면 금방 안다. 군대 이 사람이 복음을 못 들었다는 것이다.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무슨 복음 말인가? 너를 괴롭히는 영적 존재가 무엇인지 한 번도 교회기도 못 들었다. 그것이 말이 되는가? 듣고도 못 깨달으면 여러분 책임이지만 못 들었으면 우리 책임이다.

나는 신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대구 지하철에 불을 지른 사람이 병원에서 3번이나 소동했다고 한다. 그냥 살려달라고. 병원에서 그랬다. 나를 살려달라고. 병원에서 소동을 3번을 했다고 한다. 그게 바로 아주 무식한 말로 악령이 잡힌 것이다. 고통 자꾸 당하다가 그렇게 된다.

▶이 답이 성경책에만 나와 있다. 그렇다면 복음 가진 사람이 말 해줘야 될 것이다. 누가 복음가진 사람이 한 번만 설명해주면 그 사람이 당장 치유 안 되더라도 영적인 부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나는 너를 애굽 중 된 것에서 건져낸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라. 이 사실을 자녀에게 말하라. 이 사실을 왜 장로에게 말하라고 하는가. 그래야만 교인들이 알아듣는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게 만들어라.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다. 이 사람이 못 참아서 대구 지하철에 불을 지르는데 문이 고장이 나서 안 열린다. 안에 여자들을 수십 명 죽인 그 사람이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곳곳에 중직자들 많이 세워서 빛을 비춰야 한다. 우리 서울에 있는 목적은 너무 수도권이 크기 때문에 2천군데 빨리 빛을 비추는 작업을 해야 한다. 오늘 저녁에 특강 하는데 군 선교 하시는 분들 걱정할 필요 없다. 빛만 비추면 되는가? 나는 증거가 있다. 우리 마을에 똑같이 나하고 자라는데 거의 실패했는데 우리 집만 복음 주시고 축복하셨다. 그 이상한 것들을 설명할 수 없는데 나는 봤다.

3.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세 번째로 무엇인가?

(1)9절에, 구름 속에서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났다. 무슨 의미인가?

(2)11절에 여호와께서 산에 강림하셨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은 문제들이 많다. 하나님 능력 체험하라. 그게 우리 인간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 말이다. 어떻게 체험하는가? 오늘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내가 필요 없다는데 어떻게 역사 일어나는가?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 영적 역사는 정확하게 때문에 지금 그 힘을 얻어야 한다. 주일날 짧게 예배하는 시간에서도 그 힘을 얻어야 한다.

▶나는 기도할 줄 몰랐다.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까. 나는 옛날에 처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복음을 알게 하시고 매일매일 응답을 주셨다.

▶80이 된 모세에게 어느 날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때부터는 80노인이지만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모든 일을 해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은 문제 있는 분들 오늘 힘을 얻으시길 바란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필요한 줄 하는데 간단하다. 1초만 해도 간단하다.

▶엘리아가 완전히 포기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럴 때 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힘을 주셨다. 그때부터 엘리아는 진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렘넬트7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체험한 사람도 있다. 영영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언약을 오늘 붙잡아야 한다. 그게 요약하면 이 땅에 상상치도 못할 고난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여기서 구원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이다. 이 언약을 내 자녀와 장로와 백성들에게 전달하라.

그리고 오늘 구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4. 결론- 더 중요한 미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미래이다. 여러분의 미래에 중요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

(1)광야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이다.

(2)여호수아3:4절을 보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나에게 영적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3)왜 그런가? 가나안 땅 가야하기 때문이다. 목사님 나에게 지금 고난이 와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난을 두려워 할 필요 없다.

▶그런데 요즘 렘넬트들 보면 특징이 아주 머리로 좋은데 고난을 못 참는다.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차이점이다. 이것만 한 고난도 못 참는다. 고난을 두려워 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영영히 잊어버리지 말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고난, 오히려 고난 없는 것이 문제이다. 나는 보니까 학생들이 고난 속에서 공부하고 돈 벌어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도 희망이 있다. 좋은 환경을 타고 나서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큰 언약을 못 잡는 이상 그게 더 불행하다.

▶나는 어릴 때 마을에 불이 나서 불속에서 기어 나왔다. 지금도 불조심 글자를 보면 맞다! 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큰 호텔 같은데서 자면 혹시 불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때는 보면 불조심 안 그러고 불불불 조심 한다. 그것을 보고 맞다! 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세 시간을 불 밑에서 기어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어른들도 다 죽었다. 어른들도 몇 백 명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산에 데리고 갔는데 불이 나서 내가 산을 오르내리면서 많이 고생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가 일찍 병들어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것들이 전부 훈련이었구나. 어릴 때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고난은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오늘 예배 끝나고 1분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라. 무엇을 기도 하는가?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었다.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를 하라. 애굽에서 나를 건져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후암과 아주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가장 생각나는 사람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오늘 더 큰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이 기도가 언제 제일 응답되는지 모른다. 기도응답이 언제 제일 잘되는지 사람들은 모른다. 이것이 주로 말씀 받을 때이다. 말씀 받을 때 조금만 기도해도 역사 일어난다. 오늘 영영히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 이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개인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말씀 붙잡고 전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사업, 직장, 산업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영광 중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b>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b> ① <a href="http://www.darak.net">http://www.darak.net</a> ② <a href="http://data.darak.net">http://data.darak.net</a>
총 국 장: 김성호 목사 (☎011-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 (☎011-375-9383 ☞3759383@paran.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